

2. 김소진, <자전거 도둑>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8분
2. 본문을 읽는 시간: 4분
3. 문제를 푸는 시간: 4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증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원, 다섯 개에 십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꽂는 것이었다. 그 캐리멜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흰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중간나래! 양생이처럼 기러케 쓸라닥질을 [A]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췌 채 서 있었다.

(중략)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상회로 물건을 떼러 갔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흑부리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 우리 부자가 가져온 정부미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루에 휩쓸어 담았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헛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휘방질을 놓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흑부리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진로소주 두 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런가, 흑부리영감이 우리를 불러세우는 것이었다.

거 영감, 이보우다. 그 포대 좀 풀어 다시 한 번 헤아려보세. 계산이래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가 무슨 구세주라도 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난들 달리 뽀족한 수가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결국 흑부리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건 말예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때접때 우리 집에서 사실 두 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응, 췌췌이어서요……

나는 이상하게도 맘이 편하고 당당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로 번져 나온 미소를 단속하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몇 번인가 틀어막기도 했다. 흑부리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일단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아버지는 헤설픈 표정으로 날 쳐다 볼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흑부리영감이 당신과는 이제 거래 끝이야 하고 선언할까 봐 [C] 하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처럼 이북 출신인 그 영감은 시장통에서 신용 하나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지만 성질이 불같고 매몰차기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기에 그런 상황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내래 이까지 걸루다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겠어. 다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데 으잉?

아유, 고맙습네다 영감님. 그저 어떻게 헤헤……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민한 애가 아닌데 어찌다……

단……

흑부리영감이 아버지의 말끝을 가로챘다.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뵈 주라우. 내가 그깟 술 두 병이 아까워서 기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러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건 바로 자식에게 말이야.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잖슴매? 내 이 자리서 이녁이 하는 껌냥을 두고보고서리 까짓것 그 술 두 병은 거저라두 주겠어. 내 이 제정 남한테 콩알 반췌가리도 거저 준 적은 없지만서두, 이건 경우가 다르다우 아암. 호되게라든…… 어찌케?

췌췌, 이녁도 함경도 아바이 출신이든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드러케 다루는지는 알 만하잖소? 그걸 왜 내게 묻소 으응? 아 안 그렇소?

「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민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 보라우. 」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오르며 감각을 잃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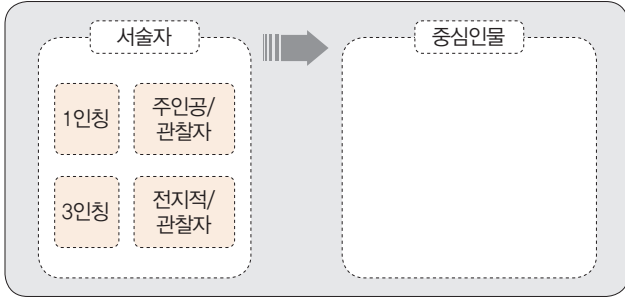
길티…… 기계 바로 진짜 교육이야.

흑부리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굽신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계 좋게 올려뿔었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리곤 투시해 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 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1. 윗글의 작품 구조를 파악해 보자.



2.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관찰과 서술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독백적 어조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방언을 활용하여 인물을 사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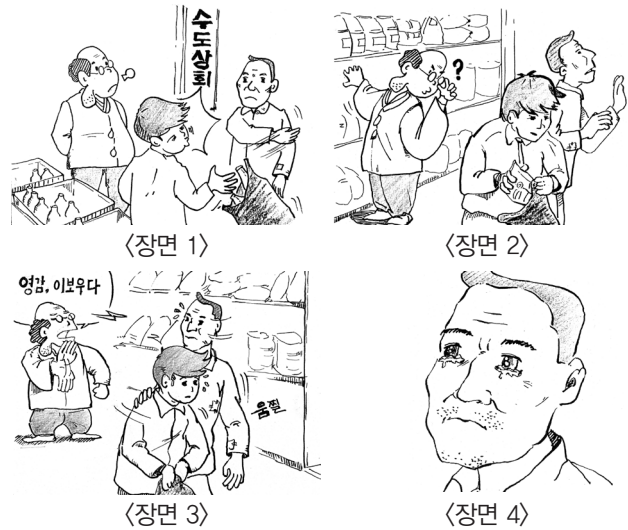
3. [A], [B]의 발화가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표출된 부자간 갈등이 [B]에서 해소된다.
- ② [A]에서 드러났던 아버지의 권위가 [B]에서 무너진다.
- ③ [A]에서 보여 줬던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이 [B]를 전환점으로 사라진다.
- ④ [A], [B] 모두 아버지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한다.
- ⑤ [A], [B] 모두 부당하게 억눌려 살아온 아버지의 과거를 유추하게 한다.

4.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전전긍긍(戰戰兢兢)
- ② 노발대발(怒發大發)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 ④ 우왕좌왕(右往左往)
- ⑤ 의기양양(意氣揚揚)

5. 윗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려 보았다. 제작 회의 과정에서 오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장면 2〉 → 〈장면 3〉 → 〈장면 1〉 → 〈장면 4〉'가 되겠군.
- ② 〈장면 1〉 앞에 주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대비되는 단호한 흑부리영감의 표정을 삽입하면 좋겠어.
- ③ 〈장면 2〉에서는 물건을 담는 나의 행동을 방해하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해야겠어.
- ④ 〈장면 3〉에서는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효과음을 사용하면 어떨까?
- ⑤ 〈장면 4〉 다음에는 아버지의 얼굴 위에 어른이 된 나의 얼굴을 오버랩시키며 장면을 전환하면 어떨까?

2. 김소진, <자전거 도둑>

STEP 2' 작품 공부하기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진로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 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갈사탕만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주듯이 거래를 더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쪽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 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 여덟 병의 진로소주를 낫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아! 아버지…….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상회로 물건을 떼러 갔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흑부리 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 우리 부자가 가져온 정부미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루에 휩쓸어 담았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헛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휘방질을 놓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흑부리 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진로소주 두 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인가, 흑부리 영감이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다.

“거 영감, 이보우다. 그 포대 좀 풀어 다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계산이래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가 무슨 구세주라도 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난들 달리 뽀족한 수가 있을 틈이 없지 않은가.

결국 흑부리 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중략)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민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오르며 감각을 잃어갔다.

“길티 기계 바로 진짜 교육이야.”

흑부리 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굽신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 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리 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리고 투시해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 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작품에 대하여

1. 주제: 유년 시절에 겪었던 상처

2.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3. 특징:

- ① 유년 시절을 회고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② 영화 '자전거 도둑'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 ③ 회상적이며 사실적인 특색을 지닌다.
- ④ 방언을 쓰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이 드러난다.

STEP 3' 해설 확인하기

1. 1인칭 주인공 시점, 중심인물(나, 아버지, 흑부리 영감)

2. ⑤

해당 작품은 1인칭 시점이자, 주인공 시점이므로, ⑤와 같이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사건의 관찰과 서술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과거'에 대한 서술이나, '미래'에 대한 서술을 의미한다. 해당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대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 ② '구체적인 소재'라 하면 '정부미 자루'에서 해방 전후의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
- ③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부분을 읽어보면 독백적 어조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중간나래!~, '애! 간나야~' 등에서 방언을 확인할 수 있다.

3. ②

[A]에서는 잘못된 아들을 교육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B]에서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뒤집어쓰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이 모습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에 있었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아버지의 권위가 [B]에서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대신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 ① [B]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 ③ [B]에서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이 사라지거나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거래가 끊기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적절치 못한 행동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④ [B]에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A]에서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A]와 [B] 모두 부당하게 억눌려 살아온 아버지의 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4. ①

①의 상황은 안전부절한 상황과 연결된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전전긍긍'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이란 의미를 지닌다.

오답피하기

- ② 노발대발: 몹시 노하여 펄펄 뛰며 성을 냄.
- ③ 동분서주: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 ④ 우왕좌왕: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잡지 못함.
- ⑤ 의기양양: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5. ③

'아버지는 ~ 두 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버지가 직접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물건을 담은 나의 행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오답피하기

- ① 사건을 시간적 순서대로 진행되면, <장면 2>와 같이 물건을 먼저 담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장면 3>과 같이 흑부리 영감이 그들을 불러 세우고, <장면 1>에서처럼 자신의 아들을 때려야 하며, <장면 4>와 같이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 있는 눈물'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아버지는 허겁지겁, 겁에 질린 송아지처림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흑부리 영감은 당당하게 그들을 불러 세운다. 따라서 이 둘의 모습은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장면 3>에서는 효과음을 사용하면 극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다.
- 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유년 시절을 회고하는 말투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어른이 된 나의 얼굴을 오버랩하여 표현할 수 있다.

3. 김유정, <만무방>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9분
2. 본문을 읽는 시간: 4분
3. 문제를 푸는 시간: 5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였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뒀들였고 털기까지 하려면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뻔질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였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흘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뒀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

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 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싶는데 빈 지계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였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얹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였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
[A] 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빛도 다 못 ㉤가릴 모양. 예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였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였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였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뒀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벼를 잘못 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걸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였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댕 말 가량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계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좋이 입어야 될 것이다.

(중략)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뭇지 형겅이 가리였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뭇이 뺨소니를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째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테굴테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땀벼들여 우선 허리계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떠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

음인지 시선을 치견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뚱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홑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

[B] 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통스러이 내뺏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

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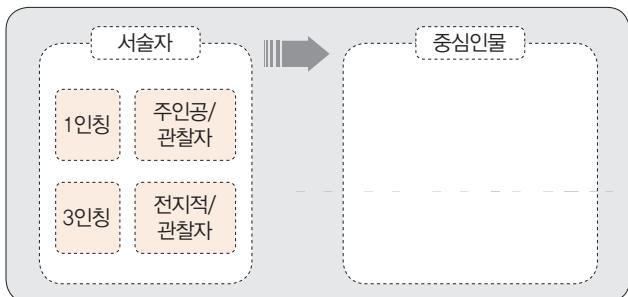
- 김유정, <만무방>

* 장리: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색초: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 윗글의 작품 구조를 파악해 보자.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 ㄱ. [A]는 [B]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 ㄴ.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소된다.
-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 ㄹ. [A]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개인이었다가 [B]에서는 사회로 확대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 '응칠'의 행동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토대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ㄱ. 응칠이는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다.
- ㄴ. 응칠이는 담판을 지으려고 지주를 만난다.
- ㄷ. 응칠이는 지주의 뺨을 때린다.
- ㄹ. 응칠이는 논에 가서 도적을 기다린다.
- ㅁ. 응칠이는 도적을 잡기 위해 다짜고짜로 달려든다.

- ① ㄱ, ㄴ을 통해 동생을 생각하는 응칠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② ㄱ, ㄹ에서 응칠이가 동생을 찾아온 일이 도적과 관계됨을 알 수 있어.
- ③ ㄴ, ㄷ, ㅁ을 통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응칠이의 성격을 알 수 있어.
- ④ ㄴ, ㄹ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응칠이의 의지를 볼 수 있어.
- ⑤ ㄹ, ㅁ은 응칠이가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혐의를 벗기 위해 한 행위일 수 있어.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진실한 농군'의 행위인 점에 비추어, 의도가 단순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 노동의 결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쓸쓸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 ③ ㉠ :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된다.
- ④ ㉡ : 싸움 중에 잠시 찾아온 침묵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
- ⑤ ㉡ : 뜻밖의 상황을 당해 당혹스러워 하는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6.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알아주는
- ② ㉡ : 태우며
- ③ ㉠ : 값을
- ④ ㉡ : 거칠게
- ⑤ ㉠ : 친다

3. 김유정, <만무방>

STEP 2' 작품 공부하기

[앞부분 줄거리] 응칠은 처자가 있던 성실한 소작농이었지만, 빛이 늘어 결국 아반도주하였다가 처자와도 헤어지고 유랑하게 된다. 그러던 중 동생이 그리워 찾아오게 된다.

응칠이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인제는 몰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고자 생각은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거리는 중이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부리 놓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었다.

그러다 저물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새장. 물론 수가 좋으면 괴때기 위에서 밤을 편히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 어수룩한 산골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 간 데 별로 없이 유람 겸 편답하였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음은 가슴이 답답할 만치 되우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본시 역마 직성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도 오 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딜 하루라도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앉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갖은 궁리를 되하고 되하였다. 마는 별 뽕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가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보라 하였다. 그리고 저는 벼루에 먹을 갈아 찍어 들었다. 벽에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끄를렸다. 그 위에다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려적었다. 독이 세 개, 호미가 둘,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짚이 석 단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빛을 얻어온 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쪽 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놓고, 그 옆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오십사 원을 갚을 길이 없으매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게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닫고 울타리 밀구멍으로 세 식구가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 밤 아내의 얼굴이 썩 슬픈 빛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에인다. 다 쓰러져 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섬을 두르고 언내에게 젓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유,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나까 그 말이, 이러다간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째 언내를 잡겠수, 그러니 서루 갈립시다, 하는 것이었다.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불어 다닌댔자 별 수 없다. 그보담은 서로 갈리어 제맘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가뜩하리라.

그는 선뜻 응낙하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 가서 젓먹이나 잘 키우고 몸성히 있으면 혹 연분이 닿아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깐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서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새고 나서 날이 흰해지자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섰다. 매팔자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게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눈 땀 걱정도, 호포 바칠 걱정도, 빛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는 걱정도, 호동가란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도야지구, 닭이구, 개구,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 돈도…….

그러나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였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불들려간다. 왜냐하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그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려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본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 김유정, <만무방>

※ 작품에 대하여

1. 주제: 일제 강점기, 농민의 궁핍한 현실

2.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3. 특징:

- ① 아이러니 상황이 두드러진다. (마지막 부분)
- ② 궁핍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 ③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서술하여 나타내었다.
- ④ '응오'는 '응칠'이의 아우이다. 성실한 농꾼이다.
- ⑤ '응칠'이는 '응오'의 형이다.
- ⑥ '만무방'은 '막되어 먹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작중 인물인 '응오'와 '응칠'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연민의 대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만든 '사회 현실'을 '만무방'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STEP 3 '해설 확인하기'

1.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중심인물(응칠, 응오)

2. ①

해당 작품에서 응칠이는 동생이 보고 싶어서 응오를 찾아온다. 그런데 문제는 응오에게 생겼다. 아내가 거의 죽게 된 데다, 풍년이 아닌 흉년이라 벼를 베 봤자 손해만 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동,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말이 가장 타당하다.

오답피하기

- ② '삽화 형식'은 병렬적 구성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인데, 해당 지문은 인과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삽화 형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 ③ '장황한 해설'을 하려면 이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문은 응칠과 응오의 행동과 정서 위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장황한 해설을 표현한 부분이라 볼 부분이 없다.
- ④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 부분이 없다. 행동 묘사와 외양 묘사는 전혀 다른 것이며, '외양'을 감각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 ⑤ '서정적 분위기'는 낭만적 분위기와 결부되며 '아름다운 분위기'와 연결된다. 해당 작품은 민중들이 겪는 고달픈 현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낭만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3. ②

- ㄱ. [B]에서 벼를 훔치는 응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행동의 배경은 [A]에서 밝혔듯이 올해 흉작인데다가, 빛도 제대로 못 갚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B]의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역설적'인 행동은 '자기의 벼를 훔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기의 것을 자기가 훔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 ㄴ. [B]에서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ㄹ. [A]와 [B] 모두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결국 모두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서 '사회'로 확대되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4. ②

응칠이가 먼 곳에서 온 이유는 동생이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응오의 눈에 도둑이 들게 되었고, 응칠이는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도둑을 잡아 혐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이런 인과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응칠이가 동생을 찾아온 일은 '보고 싶어서'이지, '도적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응칠이는 동생이 보고 싶어 왔고, 또 동생을 힘들게 하는 지주를 만나 담판을 지으려는 것을 보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③ '담판을 짓는 행동', '지주의 빵을 때리는 행동', '도적을 잡기 위해 달려드는 행동' 모두 적극적이고 거칠다. 이런 행동을 볼 때,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응칠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④ '담판을 지으려는 행동'과 '도적을 기다리는 행동'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 ⑤ '눈에 가서 도적을 기다리고, 달려드는 행동'에서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혐의를 벗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④

㉞은 응칠이가 도둑을 잡고 보니 자기 동생인 것을 알게 된다. 이때 응칠이가 느끼는 감정은 당혹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두고 '경계심'이 드러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오답피하기

- ① '진실한 농군'의 행위에서 볼 때 벼를 벨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따라서 의도가 단순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은 적절하다.
- ② ㉞에서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것과 연결되므로 쓸쓸함과 안타까움을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 ③ ㉞에서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와 '벼가 사라졌다'는 사건과 연결해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해석이 되며, 의외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주는 구절이다.
- ⑤ ㉞에서 확인되는 '꿈속 같은 분위기'는 상황이 예상과 달라져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뜻밖의 상황을 당해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④

'모로'는 '비껴서, 또는 대각선으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고개를 흔들다' 즉 거절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옆쪽으로 흔들다'는 말은 어색하다.

오답피하기

- ① 쳐주다: 인정하여 주다.
- ② 졸이다: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
- ③ 가리다: 치러야 할 셈을 따져서 값아 주다.
- ⑤ 놓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다.

1. 박지원, <광문자전>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9분
2. 본문을 읽는 시간: 5분
3. 문제를 푸는 시간: 4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문(廣文)이란 자는 한 비령뱅이다. 그는 일찍이 종루(鐘樓) 네거리 저자에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그리하여 길 거리에 다니는 못 비령뱅이 아이들은 모두 광문이를 우두머리로 추대하여, 그들의 보금자리인 구멍집을 지키게 했다.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모든 아이들은 서로 이끌고 밥을 빌러 나가고, 다만 한 아이만이 병에 걸려 구멍집을 떠나지 못했다. 이윽고 그 아이의 추위는 점차 더하여 신음하는 소리가 유달리 구슬펄다.

광문이는 홀로 매우 불쌍히 여기다가 끝내 견디지 못해서 구멍집을 나와서 밥을 빌다가 돌아왔다. 그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 했으나, 그 아이는 벌써 숨결이 지고 말았다.

이윽고 못 아이들이 구멍집으로 몰려 들어왔다. 그들은 광문이가 그 동무를 죽인 것이라 의심하여 서로 꾀하여 광문이를 두들겨 구멍집에서 몰아냈다. 광문이는 하는 수 없이 도망하여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개를 놀래 깨웠다. 개 소리에 잠을 깬 그 주인 영감이 밖으로 나와서 광문이를 잡아 묶었다. 광문이는,

“나는 원수들을 피해 온 놈이유. 조금도 도둑질할 뜻은 없어유. 주인 영감이 기어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밝은 아침 나절에 종루 저자에서 밝혀 드리겠어유.”

하고 하소연을 했다. 그의 말씨는 정말 꾸밈없는 순진 그대로였다. ㉠주인 영감은 벌써 마음속으로 광문이가 도적이 아님을 알아채고는, 그 이튿날 새벽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는 곧 감사를 드리고, 거적때기를 얻어 갖고는 가버렸다. 그 행동을 본 주인 영감은 끝내 꾀이히 여겨서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마침 못 비령뱅이가 한 시체를 이끌고 수포교에 이르러서 그 시체를 다리 아래 던지고 가버렸다. 광문이가 다리 속에 숨었다가 그 시체를 거적때기 속에 싸서 남몰래 지고 가서 서문 밖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 울면서 무슨 말을 증언거렸다.

그것을 본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잡고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이는 그제야 그의 앞서 한 일과 어제 한 일들을 숨김없이 다 밝혔다.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이의 일을 의롭게 여겨서,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모든 것을 우대하였다. 그리고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어떤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다.

어느 날 부자가 문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다시금 방에 들어 자물쇠를 살피고 문밖을 나서면서도 그의 얼굴엔 몹시 기쁘지 않은 기색을 띠었다. 그는 이윽고 돌아와서 깜짝 놀라더니, ㉢광문이를 눈독 들여 보며 무엇을 말할 듯하다가 얼굴빛이 변한 채 그만 그치고 말았다.

㉣광문이는 실로 그러는 이유조차 모르는 채 날마다 잠자코 일만 했을 뿐 감히 하직하고 떠나버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갖고 와서 부자에게 드리며,

“앞서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 왔더니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갖고 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선 모르셨겠죠.”

한다. ㉤그제야 부자는 광문이에게 크게 부끄럽게 여겨 광문이더러,

“나는 소인이야. 이 일로 부질없이 점잖은 사람의 뜻을 수고롭게 하였네 그려. 내 이제 무슨 낮으로 자네를 대하겠나.”

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부자는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는 물론이요, 다른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이야말로 정의를 지닌 인간이지.”

하고 널리 칭송하였다. 그는 또 그의 모든 종실(宗室)의 손님들과 공경(公卿)의 문하(門下)에 다니는 이들에게 이르는 곳마다 선전하였다. 그리하여 공경의 문하에 다니는 이들과 종실의 손님들이 모두 이것으로 이야깃거리를 삼아서 밤이면 그들의 베갯머리에서 들려주었다. 그리하여 몇 달 사이에 서울 안의 사대부치고선 광문이의 이름을 옛날 가락한 사람처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중략)

광문이가 길에서 싸움하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훌훌 벗어젖히고는 함께 싸움에 가담하는 체한다. 그러나 그는 무슨 말을 지껍어는지 머리를 숙여 땅을 그으면서 마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했다. 그러는 꼴을 본 온저자 사람들은 모두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러면 싸우던 이도 역시 웃지 않을 수 없어 모두 흠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광문이는 나이가 마흔이 넘었을 때에도 오히려 총각머리를 땅았다. 남들이 장가들기를 권하면 그는 곧,

“도대체 예쁜 아가씨는 누구든지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나 이는 사내만이 그런 것은 아니요, 저 여인들도 역시 그런 거야. 그러므로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 수 있단 말이야.”

했다. 남들이 혹시 그에게 살림살이를 차려 주려 하면 그는, “나는 부모도 아니 계시고, 형제 처자마저 없는 인간이니 무엇으로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아침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저자로 들어갔다가 해가 저물면 저 부귀(富貴家)의 문턱 밑에 피로한 몸을 쉬이지 않으우. 그리고, 서울의 호수(戶數)가 팔만에 날마다 그 처소를 옮기는 만큼 내 나이를 아무리 많이 산다 하더라도 골고루 다니진 못할 게 아니우.”

하고 사양했다.

- 박지원, <광문자전>

1. 윗글에 대해 <보기>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때, 설정한 과제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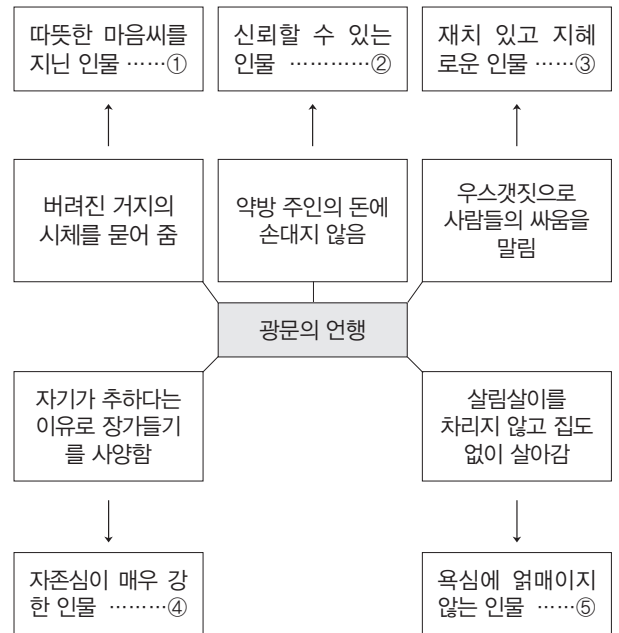
글을 읽으면서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즉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을 '발견적 과제'라 하고, 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는 심층적 질문을 '탐구적 과제'라고 한다. 소설 읽기의 경우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배경은 언제 어디인가' 등 읽으면서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발견적 과제'이고, '왜 그러한가,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등 읽고 나서 깊이 생각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탐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 ① 광문이가 약방 고용살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② 우두머리인 광문이가 왜 직접 구걸하러 나가야 했는가?
- ③ 거지인 광문이의 삶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인가?
- ④ 광문이를 풀어 준 주인 영감은 왜 몰래 광문이의 뒤를 밟았는가?
- ⑤ 거지인 광문이가 어떻게 장안의 유명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 ② 몇 개의 사건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엮어 나가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치밀하게 묘사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3. 윗글을 읽고 광문의 언행을 통해 그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윗글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의 상황을 방백으로 바꿀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말하는 태도를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군.'
- ② ㉡ : '역시 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의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구나.'
- ③ ㉢ : '아니야. 저 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했으니 돈을 훔쳤을 리 없어.'
- ④ ㉣ : '주인이 나를 보는 얼굴빛이 심상치 않네. 왜 저러시지?'
- ⑤ ㉤ : '그 동안 내가 괜한 사람을 의심했구나.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어.'

1. 박지원, <광문자전>

STEP 2' 작품 공부하기

[앞부분 줄거리] 광문은 걸인이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움막에는 광문과 병이 든 거지 아이만 남고 다른 거지들은 모두 구걸하러 나가고 없었다. 거지 아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 광문이 불쌍히 여겨 밥을 얻으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죽고 말았다. 걸인들이 돌아와 광문이 아이를 죽였다고 하면서 광문을 내쫓았다. 광문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마을 집에 숨어들었다가 집주인에게 들켜 도둑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진한 광문의 말을 들은 주인은 광문을 놓아 주었다.

광문은 사례를 하고 거적때기를 하나 얻어 가지고 가 버렸다. 집주인은 괴상하게 여겨 그 뒤를 따라가 보았다.

여러 거지들이 한 시체를 끌어 수표교까지 오더니 그 다리 밑에다 버리는 것이었다. 광문은 다리 밑에 숨었다가 거적때기로 돌돌 싸서 등애다 걸머지고 서대문 밖 공동묘지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이것을 숨어서 보고 있던 집주인은 달려들어 광문의 손을 잡았다. 광문은 이때에 전후 사정을 남김없이 다 말했다.

이것을 듣고 감탄한 나머지 광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주는 등 후대하였다. 마침내 광문을 어느 약장사하는 부잣집에 천거하여 주었다. 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한 지 오래된 어느 날, 그 집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며 힐끔힐끔 돌아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살피고 다시 나가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에 못마땅한 눈치였다. 불일을 다 보고 돌아온 주인은 방안을 살펴보고 깜짝 놀라며 광문을 노려보고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얼굴빛을 고치고는 말이 없었다. 광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다만 묵묵히 일할 뿐 주인 눈치가 불쾌하다고 해서 무단히 그 집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이 지난 뒤 그 집주인의 처조카 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주인보고 하는 말이,

“저번에 아저씨한테 돈을 좀 취하고자 찾아 왔었는데 마침 안 계셔서 방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갔는데 아마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후회하며 광문에게 사과를 하였다.

“나는 용졸한 사람ियो. 공연히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제부터는 그대를 대할 면목조차 없습니다.”

하며 아는 사람이나 친구인 부자나 또는 큰 장사꾼 그리고 종실과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광문을 행실이 옳고 바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칭찬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으레 광문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느덧 두서너 달 사이에 사대부들까지도 광문을 옛날 어진 사람처럼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에 서울 장안에서는 모두들 광문을 후대하여 그를 천거해 준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보고 또한 약장사하는 부자 역

시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하였다. 돈놀이하는 사람이 전당포를 하는 데 있어서 목걸이, 옷, 그릇, 그림집, 토지 및 중문서 등 물품을 담보로 영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광문은 아무런 전당을 잡히지 않고도 천금을 대부 받을 신임이 있었다.

그러나 광문은 지극히 얼굴이 못났었다. 말썬도 없어서 사람을 움직일만한 능력이 없고 입은 커서 주먹 둘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아주 심한 장난꾸러기여서 별별 짓을 다 하였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상대방을 서로 헐어서 말하기를

“네 형이 달문이지.”

하면 못난 것을 상징하므로 큰 욕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달문이 광문의 별명이었던 까닭이었다.

광문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웃통을 벗어젖히고 덤벼들며 무엇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엮드려서 땅에다 금을 긋고 잘잘못을 가리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온 장터 사람들은 모두 웃고, 싸우던 사람도 또한 웃으며 헤어져 버린다.

광문은 나이 사십이 넘도록 머리를 땅은 총각이었다. 사람들이 장가를 권하면,

“어여쁜 계집의 얼굴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법이요. 그러나 이것은 남자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지요. 여자도 또한 잘생긴 남자를 희망하거든요. 나는 이런 추한 얼굴을 하고서야 어찌 계집이 따르려고요.”

또 집을 장만하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 형제 처자가 없는데 집을 장만해서 무엇하오. 아침에 일어나 노래 부르며 시내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고 해가 저물면 부잣집 문턱에서 잔대도 장안 호수가 팔만인데 날마다 그 장소를 옮겨도 내 생전에 다 끝나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 박지원, <광문자전>

※ 작품에 대하여

1. 주제: 새로운 인물상을 제시

2. 특징:

- ① 일화를 통해 인물상을 그리고 있다.
- ② 작가의 근대적인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위선적인 당시의 양반들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 있다.
- ④ 비천한 거지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모습을 그리면서 인간에 대한 가치를 재물이 아닌 인격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남성과 여성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같다는 점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영감님'은 순박한 광문의 인격을 알아본 인물이다.
- ⑦ '부자'는 집주인의 도움으로 약방에 고용하지만, 미천한 신분 때문에 의심을 하였다.
- ⑧ '소인'은 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사람으로 부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STEP 3' 해설 확인하기

1. ③

③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은 모두 '발견적 과제'에 해당한다. ③은 '탐구적 과제'로 거지인 광문이 일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가와 같은 내용으로, 이는 글을 읽으면서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미천한 신분인 광문의 삶을 통해 신분이나 지위보다 신의와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광문이 약방 고용살이를 하게 된 계기는 광문의 인품에 감동한 주인 영감의 추천 덕분이다. 글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적 과제에 해당한다.
- ② 광문이 우두머리이면서 구걸하러 나간 것은 몸이 아픈 아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글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적 과제에 해당한다.
- ④ 주인 영감이 광문의 뒤를 밟은 이유는 광문이 거적때기를 무엇 때문에 가져갔는지 궁금해서이다. 해당 부분은 초중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⑤ 광문이는 거지임에 불구하고 그의 성품이 매우 뛰어나다. 그뿐만 아니라 (중략) 이전 문단을 보면 부자는 '다른 부자와 ~ 선전하였다.'는 것을 보아 광문이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②

해당 지문에는 '광문'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여 '광문'이란 인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 있다. 광문이 거지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지내다가 쫓겨난 일, 동네 영감을 만나 의로움을 인정한 일, 약방 고용살이를 하며 주인을 감동시킨 일 등 다양한 일화가 있으므로, ②가 가장 적절한 선지이다.

오답피하기

- ① 해당 지문에는 대화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한 인물에 대한 일화를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고조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 ③ 해당 지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의 심리는 나타날 수 있어도,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 ④ 해당 지문에서 외양을 치밀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해당 지문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비극적 상황'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3. ④

광문이 '자신의 얼굴이 추하다'는 이유로 장가를 거절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지 이를 통해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녀 모두 예쁜 사람을 그리워한다며 근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광문이는 버려진 거지의 시체를 묻어주는데, 이 모습에서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광문이는 남과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③ (중략) 이후를 보면, 광문이는 싸움하는 이들을 만나면 싸움에 가담하는 체 하는데, 승부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기지를 발휘하여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재치와 지혜 모두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⑤ 광문은 살림살이를 차리지 않고 집도 필요 없다고 사랑하는 것을 보아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로 볼 수 있다.

4. ③

㉠의 맥락을 읽어 보면 '부자'는 돈을 방에다 두고 외출하면서, 혹시 광문이가 훔쳐 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은 부자의 처조카가 가져간 것임을 ㉡ 이후에 알게 되었고, 부자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저 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했으니 돈을 훔쳤을 리 없어.'라는 반응은 '의심을 하는 행동'과 관련지을 수 없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의 맥락을 보면 '그의 말씨는 정말 꾸밈없는 순진 그대로였다.'와 같은 의미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과 같이 연결하여 볼 수 있다.
- ② ㉢의 앞뒤를 확인해 보면, 주인 영감은 광문의 일을 듣고 의롭게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구나.'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다.
- ④ ㉡의 앞뒤를 고려하면 주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광문이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얼굴빛이 심상치 않네.'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다.
- ⑤ ㉡의 앞뒤를 고려하면, 부자는 광문이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내가 괜한 사람을 의심했구나.'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다.

2. 박지원, <민옹전>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8분
2. 본문을 읽는 시간: 5분
3. 문제를 푸는 시간: 3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옹은 말을 할 때면 장황하게 하면서, 이리저리 둘러대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꼭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고 그 속에 풍자를 담고 있었으니, 달변가라 하겠다. 손님이 물을 말이 다하여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분이 올라,

①“옹께서도 두려운 것을 보셨겠지요?”

하니, 옹이 말없이 한참 있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두려워할 것은 나 자신만 한 것이 없네. 내 오른쪽 눈은 옹이 되고 왼쪽 눈은 범이 되며, 혀 밑에는 도끼를 감추고 있고 팔을 구부리면 당겨진 활과 같아지지. 차분히 잘 생각하면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나, 생각이 조금만 어긋나도 짐승 같은 야만인이 되고 만다네.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장차 제 자신을 잡아먹거나 물어뜯고 쳐 죽이거나 베어 버릴 것이야. 이런 까닭에 성인께서도 이기심을 누르고 예의를 따르며, 사악함을 막고 진실된 마음을 보존하면서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대네.”

이처럼 수십 가지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아도 모두 메아리처럼 재빨리 대답해 내니, 끝내 아무도 그를 궁지에 몰 수 없었다. 옹은 자신에 대해서는 추어올리고 칭찬하는 반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업신여기곤 하였다. 사람들이 옹의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어도, 옹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황해도는 황충이 들끓어 관에서 백성을 독려하여 잡느라 야단들입니다.”

하니, 옹이 묻기를,

“황충은 뭐 하려고 잡느냐?”

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답하기를,

[A] “이 벌레는 크기가 첫잠 잔 누에보다도 작고, 색깔은 알록달록하고 털이 나 있지요. 날아다니는 놈을 ‘명’이라 하고 벼줄기에 기어오른 놈을 ‘모’라 하는데, 우리의 벼농사에 피해를 주므로 ‘멸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땅에 파묻을 작정이랍니다.”

하니, 옹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작은 벌레들은 근심거리도 못 되네. 내가 보기에 종루*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황충이래요. 길이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대가리는 새까맣고 눈알은 반짝거리며 아가리는 커서 주먹이 들락날락할 정도인데, 웅얼웅얼 소리를 내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줄줄이 몰려다니지. 곡식이란 곡식은 죄다 해치우는 것이 이것들만 한 것이 없더군.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큰 바가지가 없어 아쉽게도 잡지를 못했대네.”

[B]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벌레가 있구나 한 듯이 모두 크게 무서워하였다.

어느 날 옹이 오기에 나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은어로,

①“춘첩자(春帖子)에 방제(狻)로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옹이 웃으면서 말했다.

“춘첩자란 입춘날 문(門)에 붙이는 글씨[文]니, 바로 내 성 민(閔)을 가리키는 것이렷다. 그리고 방(狻)은 늙은 개를 지칭하니, 바로 나를 욕하는 것이구먼. 그 개가 울부짖으면 [啼] 듣기가 싫은 법인데, 이는 내 이가 다 빠져 발음이 분명치 않은 것을 비꼰 게로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대가 만약 늙은 개를 무서워한다면, 개를 내쫓는 것이 가장 낫네. 또 울부짖는 소리가 듣기 싫다면, 그 입을 막아 버리게나. 무릇 제(帝)란 조화를 부리는 존재요, 방(彪)은 거대한 물체를 가리키지. 그리고 제(帝)와 방(彪) 자를 한데 붙이면 조화를 부려 위대한 존재가 되나니, 그게 바로 옹(龍)*이라네. 그렇다면 그대는 나에게 모욕을 가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칭송한 셈이 되고 말았구먼.”

— 박지원, <민옹전>

* 종루: 서울 종로의 종각.

* 옹(龍): 용을 뜻하는 ‘龍’ 자를 대신해 쓰는 한자.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화를 나열하여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요약적 설명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공간의 비현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장면이 바뀌면서 외적 갈등이 내적 갈등으로 전이되고 있다.

3. <보기>를 읽고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민옹전>을 비롯한 박지원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우의(寓意)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우의는 작가의 생각을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방식으로, 그의 소설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 주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 ① [A]의 '황충'은 작가의 생각을 빗대어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 대상으로 볼 수 있어.
- ② [A]의 '황충'과 [B]의 '황충'은 모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어.
- ③ [B]에서 설명된 '황충'의 특징은 [A]의 '그 사람'이 '황충'에 대해 보여 주는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 ④ [A]와 [B]에 나타난 '황충'의 특징으로 보아 [B]의 '황충'은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를 빗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 ⑤ [B]의 '황충'을 잡으려고 했다는 민옹의 말에서 당대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어.

2.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손님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민옹에게 한 질문이다.
- ② 민옹은 ㉠에 답하기 위해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은 민옹이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민옹은 한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에 대해 답변한다.
- ⑤ 민옹은 ㉡을 결국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풀어내고 있다.

2. 박지원, <민옹전>

STEP 2' 작품 공부하기

민(閔)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하였다. 특히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중략)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보았지.”

“신선은 어디에 있소?”

“집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라고. 부자들은 늘 속세를 그리워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 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다고 다투더군. 토끼가 두꺼비더러, ‘내가 팽조와 동갑이니까, 너 같은 자야말로 후생(後生)*이다.’

하고 말하니,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읊는다. 토끼가 깜짝 놀라서,

‘왜 그리 슬퍼하나?’

물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저 동쪽 이웃집 어린이와 동갑인데, 그 아이는 다섯 살 때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그는 아득한 옛날 천황씨(天皇氏) 때에 태어나서 인년(寅年) 역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王)과 제(帝)를 거쳤으며, 주(周)나라에 이르러 왕통이 끊어지자 책력(冊曆)* 하나를 이루었지. 진(秦)나라 때에 윤달이 들었고, 한(漢) 당(唐)을 거쳐 아침엔 송(宋)나라가 되었다가 저녁엔 명(明)나라가 되었지. 모든 사변을 겪으면서 기쁜 일, 놀라운 일, 죽은 이를 슬퍼하는 일, 가는 이를 보내는 일 등으로 지루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귀와 눈이 밝아지고, 이와 털이 나날이 자란단 말이야. 저 아이처럼 나이 많게 살았던 자는 없을 거야. 그런데 팽조는 겨우 팔백 살을 살다가 일찍 사라졌다니, 그는 세상을 겪은 것도 많지 못하고, 일을 경험한 것도 오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거지.’

결국 토끼가 두 번 절하고 뒷걸음질치면서,

‘네가 내 할아버지뻘이다.’

합다. 이로써 본다면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우.”

“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하현달이 되어서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흙을 평평하게 해서 염전을 만들거든. 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로는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 온갖 맛을 조화시키면서, 소금 없이 어찌 맛을 내겠소?” 그러자 모두들 말하였다.

“중소. 그러나 불사약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소?”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겠소? 큰 골짜기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든 지 천 년만에 복령(茯苓)이 되지. 인삼 가운데는 신라의 토산품이 으뜸인데, 단정한 모양 붉은 빛에 사지가 갖추어진 데다, 쌍갈래로 땅은 머리는 아이처럼 생겼지. 구기자가 천 년 되면 사람을 보고 짓는다우. 내가 일찍이 이 세 가지 약을 먹고는 백 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숨결이 가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이웃집 할미가 와서 보고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네 병은 굶주렸기 때문에 생겼지. 옛날에 신농씨(神農氏)가 온갖 풀을 다 맛보고 비로소 오곡(五穀)을 뿌렸으니, 병을 다스리려면 약을 쓰고 굶주림을 고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단네. 이 병은 오곡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겠네.’

나는 그제야 쌀로 밥을 지어먹고는 죽기를 면했다우. 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는 셈이지.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또 한 그릇 먹고, 이제 벌써 일흔이 넘었다우.”

(중략)

어떤 사람이,

“해서 지방에 황충(蝗蟲)*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단다.”

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 한다우?”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으네,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혔지요. 이놈이 날면 명(螟)이 되고, 붙으면 모(蠹)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단다.”

민 영감이 말했다.

“이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내 보기에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이야.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 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 데다 무슨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닿고 궁둥이가 잇달아 있지. 이놈들보다 더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다우. 내가 그놈들을 잡고 싶은데, 큰 바가지가 없는 게 한스럽구려.”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 후생(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책력(冊曆): 일 년 동안의 월일,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적은 책.

* 황충(蝗蟲): 풀무치, 메뚜기과의 곤충.

※ 작품에 대하여

1. 주제: 세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

2. 특징:

- ① 삽화적 구성, 또는 병렬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 ②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③ '민 영감'은 '민유신'과 동일 인물이다.
- ④ 실존 인물인 '민유신'을 대상으로 한 전기소설이다.
- ⑤ '신선'은 '가난한 자'이라는 민웅의 말에서 재치를 읽을 수 있다.
- ⑥ '나이 많은 사람'은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길다면'서 민웅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 ⑦ '훌륭한 맛'은 '소금'이라는 민웅의 말에서 재치를 읽을 수 있다.
- ⑧ '불사약'은 '밥'이라는 민웅의 말에서 재치를 읽을 수 있다.
- ⑨ '황충'은 실제 벌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종로의 황충'은 인간을 빗대 표현으로 무의도식하는 유생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자 언급한 내용이다.

STEP 3 '해설 확인하기

1. ①

'민웅'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답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그 과정에서 '황충'과 관련된 이야기, '나'가 은어로 한 말에 대해 재치 있게 받아친 이야기 등을 서술함으로써 민웅의 개성이 있는 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적 독백은 해당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대체로 지문을 제시할 때 요약적 서술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성격의 변화는 있는 경우가 드물다. 해당 지문에서 성격의 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④ 배경을 이루는 공간은 현실성이 강한 공간으로, 비현실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 ⑤ 하나의 일화가 그 다음의 일화로 바뀌는 것을 장면이 바뀐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인물의 외적 갈등에서 내적 갈등 구조로 바뀐 것은 아니다.

2. ③

민웅은 재치가 뛰어난 달변가이다. 해당 지문의 초충반을 보면, 민웅은 '자신에 대해서는 주로 추어올리고 칭찬을 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업신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말에서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자신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는 계기라고 할 수 없으니 ③이 정답이다.

오답피하기

- ① '손님이 물을 말이 다하여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분이 올라'라는 서술을 보면 손님이 질문을 할 때 감정이 어느 정도 고조된 상태를 알 수 있다.
- ② 민웅은 ㉠에 답하기 위해 '내 오른쪽 눈은 용이 되고~'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보면 한자를 이용하여 언어유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이다.
- ⑤ 처음에 민웅은 '나'가 ㉢을 통해 자신을 욕하고 비꼰 것으로 이해를 하나 곧 '나를 칭송한 셈'이라는 것으로 보아, 결국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풀려낸 것임을 알 수 있다.

3. ③

[A]의 '그 사람'은 황해도에 황충이 창궐했다는 소식을 민웅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 황충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거나 하지 않는다. 이는 '그 사람'이 답하는 부분을 보면, '~있지요. 부릅니다. 작정이랍니다.'와 같이 전달하는 말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A]에서 언급된 '황충'은 [B]에서 황충으로 빗댄 대상을 비판하기 위하여 일부러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A]의 황충은 실제 황충을 가리키고, [B]의 황충은 실제 황충이 아니라 작가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물을 가리킨다. 이 두 대상 모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 ④ [A]의 황충은 '벼 농사'에 피해를 주는 대상이고 [B]의 황충은 '곡식이란 곡식을 죄다 해치우'는 대상이다. 이로 볼 때, 황충은 백성을 수탈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선지이다.
- ⑤ [B]에서 서술자는 '황충'을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로 그리는데, '큰 바가지'가 있었다면 그 황충을 '잡으려고 했'다는 민웅의 말은 '백성 수탈'과 같은 당대의 사회 문제를 인식하여 비판적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